

## 번역강의실에서의 의사소통

### — 석사과정생들의 번역브리프와 번역의 관계에 관한 실행연구

김진숙

(한국외대)

#### 1. 들어가며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번역<sup>1)</sup>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다양한 주체에 의한 번역담론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정혜용, 2011: 263). 이는 번역서나 TV 외화,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와 같이 번역을 접할 수 있는 기존의 창구에 더해 IPTV나 케이블TV, 인터넷 등을 통해 번역을 접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 외에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이 영상물의 대사를 직접 번역해 자막을 올리고, 블로그 등을 통해 번역비평을 올리고 교류하는 등 과거 번역을 소비하던 집단이 생산자, 비평가 역할까지 겸하게 되면서 번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서도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

1) 본 논의에서 번역은 먼디(Munday, 2006: 2)를 따라 분야로서의 번역, 결과물로서의 번역(번역된 텍스트), 과정으로서의 번역을 모두 가리킨다.

그러나 최근의 활발한 번역담론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의 번역에 대한 요구는 ST를 얼마나 충실히 옮겼는가, TT가 얼마나 잘 읽히는가 하는 충실성과 가독성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듯 보인다<sup>2)</sup>. 번역은 상품이자 서비스로서 태생적으로 사용자들의 다양한 평가에 노출되지만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지, 번역은 어떠해야 하는지와 같은 번역 자체에 대한 토론은 번역의 참여자<sup>3)</sup>들 사이에서도 미미해 번역에 대한 논의는 동일한 출발점에서가 아니라 막연한 기대나 암묵적 합의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번역교수자로서 연구자는 교육현장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해당 번역 수업의 목표 공유 기회 및 번역론<sup>4)</sup>에 대한 토론 부족으로<sup>5)</sup> 교수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적지 않은 경험을 통해 학습자와 교수자의 번역에 대한 인식 및 두 주체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관찰할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번역론에 대한 교수자의 이해를 번역강의실에서의

- 2) 이상원(2006: 172-173)은 국내 출판 번역 독자들의 번역 평가 규범 중 도착 텍스트의 효율성 규범 관련과 출발 텍스트와의 관련성 규범이 독자 번역 비평 내용에서 8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정혜용은 이상원의 연구의 의의를 현행 번역규범의 핵심에 충실성과 가독성이 자리잡고 있으리라는 짐작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데서 찾았다(정혜용 96).
- 3) ‘참여자(player)’는 기능주의 번역학자인 만타리(Mänttari)의 개념으로(Munday: 103), 번역의 참여자는 발주자, 의뢰인, ST생산자, TT생산자(번역사), TT사용자, TT수신자 등을 가리킨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스크로프이론, 번역행위 이론 모두를 기능주의 번역이론의 범주에서 논의한다.
- 4) 오로즈코(Orozco, 2001: 206), 전성기(2008: 41)와 정혜용(97)은 각각 ‘번역에 대한 의식’, ‘번역론’, ‘번역 태도’와 ‘번역논리’, ‘번역관’이라는 말로 번역사의 번역에 대한 인식을 표현했다. 번역에 대한 인식은 번역에 임하는 번역사의 입장을 나타내며, 전성기와 정혜용은 번역론은 번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번역자의 번역에 대한 인식이 번역비평에서 직역론, 의역론에 앞서 논의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번역에 대한 인식을 ‘번역론’이라는 표현을 빌려 나타내며, 학습자의 번역론은 학습자가 과제와 함께 제출한 번역브리프로 확인할 것이다.
- 5) 교수자는 강의계획서나 수업시간의 과제에 대한 피드백 등으로 학습자들에게 상술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하지만, 교수자와 학습자의 연령, 번역 실무 경험의 차이, 번역상황의 이해 차이 등으로 인해 번역과정에서는 번역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아 종강 전 마지막 수업에서야 번역 수업의 취지를 파악했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소통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효율적인 소통을 위한 탐색이 요구된다.

의사소통의 출발점으로 삼아, 번역브리프를 이용해 학습자의 번역론을 이해하고, 번역론이 TT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후, 발주자 역할을 수행하는 교수자와의 소통을 통해 TT의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이해 확대와 소통의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기능주의 번역이론

본 실험연구는 기능주의 번역이론의 관점을 따른다. 이에 따라 ST는 TT 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존재로 이해되며(Reiß & Vermeer, 2010: 113), 의도된 목적과 독자의 필요에 따라 TT는 달라진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TT는 ST와의 등가 달성 여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TT독자의 수요 만족 여부에 의해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번역은 원천텍스트의 내용과 형태를 기능적으로 적절한 목표텍스트로 만드는 과정이 되며(Nord, 1994, 2006), 번역사는 번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능적으로 적절한 텍스트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기능주의 번역이론에서는 번역 발주자가 번역사에게 번역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지침으로 번역브리프(translation brief)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Nord, 2006: 50). 번역브리프가 담고 있는 정보는 학자에 따라 번역의 목적, 납기일과 번역료를 포함한 번역의 조건(Vermeer(1989), Munday: 108 재인용), 텍스트의 의도된 기능, 발신자와 주 독자층, 텍스트 수용 시간과 공간, 매체(구어, 문어) 및 ST 제작 동기, TT 번역 동기(Nord, 102) 및 참고용, 출판용, 실무용 혹은 다른 언어의 법률문서와 동등한 위상을 갖는지와 같은 번역의 위상(Fraser, 2000: 53)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

번역브리프가 발주자가 번역사에게 전달하는 지시사항이라면, 구체화(specification)는 번역사의 번역과정 중 일부로, 여기에는 텍스트의 종류, 타입 및 전반적 주제 파악, 예상 독자, 목적, 번역본의 의도와 원본 텍스트와의 일치 여부 및 의도가 일치하지 않을 때 번역사의 수정(adaptation) 여부 등 파악하기,

번역본의 텍스트 타입, 수용자들에 대한 기대 반응, 수용자가 사전에 알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정보, 내부용인지, 외부용인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된다(Sager, 1994: 151).

하비(Harvey, 1998: 279), 체스터만과 와그너(Chesterman & Wagner, 2009: 94)는 번역에 착수하기 전에 알아야 할,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번역브리프와 구체화가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논의상의 편의를 위해 본 연구에서 번역브리프는 가상의 발주자인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제시한 번역브리프와 학습자가 교수자에게 밝힌 번역전략인 구체화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며, 학습자의 TT 외에 학습자가 번역에 대해 기술한 사항은 모두 번역브리프 내용으로서 논의하도록 한다.

## 2.2.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번역브리프를 번역교육에 활용한 연구 사례를 소개하도록 한다. 하비는 동일한 ST에 다른 번역브리프를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이 주어진 번역브리프에 따라 번역물이 사용되는 상황 및 예상 독자에 대해 예측하여 번역을 하는 경험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Harvey, 281). 또한 학생들이 작성한 일종의 주석인 번역사 노트(translator's note)를 통해 학습자들이 번역의 목적과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TT를 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답(Adab, 2000: 220)은 학부 졸업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번역수업에서 번역 전에 번역소개서(introduction)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ST에 대한 이해와 TL 선택에서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도구로 삼았다. 번역소개서는 번역물의 텍스트 타입, 기능, 적절한 의사소통 의도, 주제, 스타일, 언어적 측면으로 구성되며, 아답은 이같은 연습의 취지를 실제 번역 시장을 이해하는 데 두었다. 그 밖에 아답은 학습자들에게 번역 과정 중 봉착한 문제들을 기술하고, 이를 해결한 방법을 기술하도록 요구하였다. 브리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학습자의 번역 외적인 요소에 대한 인지를 고양시켰다는 점과 학습자의 번역에서의 선택 과정을 관찰하려했다는 점에서 아답의 연구는 전술한 하비의 제안과 일치한다.

정연일(2003: 176)은 번역강의실에서 브리프의 구체화 과정 및 브리프에 따른 번역방식 등을 소개하여 번역목적, 주 독자층, 텍스트 타입의 집약적 표현으로서 번역브리프가 번역교육에서 갖는 함의 및 효용을 밝힌 바 있으며, 신지선(2008: 37)은 번역현장에서 번역사들의 번역브리프에 대한 인식 부재를 지적하고, 번역브리프 파악, 습득 능력을 번역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번역사 능력(translator competence)의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중(Zhong, 2007)은 학습자 3인에게 번역에 앞서 번역소개서를 쓰고, 해당 번역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학습자의 번역 계획을 기술하도록 하여 번역 계획이 TT에 구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에 반영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본 절에서 소개한 연구 사례들은 번역학습자들로 하여금 해당 과업의 번역사로서 번역 과정에서의 선택에 대해 설명하고, 방어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번역과정과 번역사로서의 선택에 대한 인지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다.

### 3. 실행연구

#### 3.1. 실행연구 과정

전술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실행연구<sup>6)</sup>를 진행하였다. 실행연구는 교사가 모종의 개선 계획을 실제로 행하면서 수행하는 연구로 정의된다(이용숙 외, 2005: 21). 실행연구는 ‘연구자로서의 교사(teacher as researcher)’에 의한 연구로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황을 개선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명숙, 2001: 381). 실행연구는 이론과 실제 사이에 다리를 놓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이명숙 382; Hatim, 2001: 6-8), 전통적 연구의 목적이 객관성과 일반화에 놓인다면, 실행연구는 학자와 실제가 사이의 사회적 거리와 문화적 차이를 좁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교실에서의 일상에 유용한 연구 방법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교육학계에서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실천연구, 현장연구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괄적으로 실행연구로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선택과정을 이해하기에 앞서, 선택의 출발점이 되는 학습자의 번역론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번역브리프를 활용할 것이다. 번역브리프를 통해 학습자의 번역론 및 번역과업에 대한 인지를 확인하여 번역 수업에서의 의사소통의 출발점으로 삼고, 브리프와 TT의 상관관계를 관찰하여 학습자의 선택을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도구로서 브리프의 효용을 확인한 후, 2차 TT를 관찰하여 교수자와 학습자의 수업에서의 의사소통의 결과에 대해 관찰할 것이다.

본 실험연구는 2012년 1학기에 연구자가 담당한 중한일반번역 수업을 이용해 2주간 진행하였다. 대상자는 서울 소재 통번역대학원 1학년 학습자 10명으로, 4명은 국내에서 중국어를 수학하고 중국 연수를 거쳤고, 2명은 조선족, 4명은 중국에서 10년 이상 체류하였다. ST로는 북경대학 출판사의 학부 2, 3학년용 비즈니스 중국어 교재인 ‘성공의 길(成功之道)’ 중 스타벅스에 대해 소개한 총 1,316자 분량의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ST는 대학생용 어학 교재이면서 글로벌 기업인 스타벅스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다양한 번역목적에 부여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ST로 선정하였다.

실험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먼저 연구자는 ST를 배포한 후 여행잡지, 학부 3학년용 교재라는 2가지 게재 매체를 밝히고, 두 가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동일 매체를 선택한 학습자들끼리 전반적인 번역방침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10분 제공한 후, 번역방식에 대해 교수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교재 번역을 하는 학습자가 동일한 페이지에 원문과 번역문이 함께 실릴 예정인지 여부를 확인했던 것 외에 다른 질의 사항은 없었다.

학습자들에게는 TT와 함께 번역의 목적, 용도, 사용자, 번역 방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번역브리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sup>8)</sup>, 번역 과정에서 봉착했던 어려

7) 별도의 편집 없이 A4 1페이지 정도의 분량.

8) 전술한 것처럼 번역브리프가 포함하는 내용은 학자에 따라, 번역상황에 따라, 번역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번역맥락을 고려하는 것 또한 번역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구자는 학습자들에게 번역브리프에 포함할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학기말 학습자들과 자체 강의 평가를 진행할 때 번역브리프를 미리 제공하는 것과 본 실험연구와 같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방식 중 선호

움 및 이를 해결한 방법도 함께 소개하도록 하였다.

교수자는 수업 시간 2일 전 과제를 이메일로 받아 검토한 후 수업 시간을 이용해 학습번역과 전문번역<sup>9)</sup>의 관점에서 교재번역과 잡지번역의 TT에 대해 학습자들과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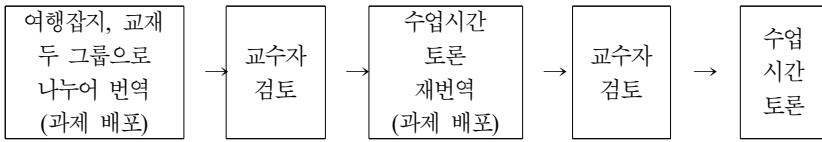
논의 방식은 학습번역을 수행한 TT의 경우 ST의 어휘와 문법적 구조를 반영하여 번역하여 학습자의 언어 학습 보조도구로서의 역할 수행 여부를 평가하고, 여행잡지에 게재되는 용도의 전문번역 TT는 ST와의 대조가 아니라 독립적인 텍스트로서의 가독성 및 여행잡지라는 장르규범에 중점을 두어 논의하였다.

TT 평가를 위해서는 핼(Pym, 1992: 4)의 비이분법적 오류(non-binary errors)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핼은 번역 오류를 명백한 오류를 뜻하는 이분법적 오류와 다양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비이분법적 오류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명백한 오류를 제외한 비이분법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TT를 보면서 문제가 되는 TT부분, 원인, 대안 등을 토론하여 학습번역과 전문번역의 차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수업시간을 이용해 동일 ST에 주어진 다른 번역브리프에 따라 제출된 두 가지 TT의 차이를 검토하고, 여행잡지와 교재라는 게재 매체가 TT에 부여하는 제약, 이에 따른 학습자별 선택의 차이를 확인한 후 여행잡지용으로 번역했던 학습자는 교재용으로, 교재용으로 번역했던 학습자는 여행잡지용으로 바꾸어 번역하도록 하였다. 본 실험연구 과정은 [표 1]과 같다.

---

하는 방식을 물었을 때 모든 학습자가 번역상황에 대해 유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앞으로도 교수자가 번역브리프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실제로 현재 번역실무 과정에서도 번역브리프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학습자 스스로 번역상황을 유추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선택의 정확성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은 교육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9) 들릴(Delisle, 2002: 229)은 번역교육을 언어 학습을 위한 학습번역교육(pedagogical translation), 번역사가 수행하는 전문번역교육(translation pedagogy)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통번역대학원에서의 번역교육은 학습번역과의 차이를 강조하고 전문번역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연구자는 동일 ST라고 하더라도 번역상황에 따라 다른 TT가 생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번역과 전문번역의 두 가지 번역방식을 두 개 조에 각각 요구하였다.



〔표 1〕 실행연구 과정

### 3.2. 실행연구 결과

본 연구는 번역브리프가 담고 있는 학습자의 번역론, 번역브리프와 TT의 상관관계, 동일ST에 부여된 다른 브리프에 따른 과업수행도를 집중적으로 관찰하여 학습자들의 번역론을 이해하고 번역강의실에서의 의사소통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2회에 걸쳐 제출된 20개의 TT와 번역브리프를 분석하였고, 본 절에서는 학습자의 번역브리프, 번역브리프와 TT의 관계, 1,2회차 TT의 차이를 본 실행연구의 결과로서 소개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학습자가 작성한 번역브리프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 3.2.1. 개인별 번역브리프의 차이

본 실행연구에서 교수자는 게재 매체만을 제공하고<sup>10)</sup>, 학습자는 게재 매체를 고려하여 스스로 판단한 번역목적, 독자, 번역 방침, 전략 등을 번역브리프를 통해 소개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브리프는 학습자들이 파악한 번역상황, 해당번역의 사용자, 사용자의 번역에 대한 기대,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교재나 여행잡지의 번역이 갖추어야 할 사항 등을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표 2]는 1주차에 교재용 번역을 수행한 학습자의 번역브리프이다.

10) 교수자는 실제 번역상황과 가장 유사한 업무 환경을 마련하고자 학습자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주지 않았으나, 작업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이메일을 이용해 문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기회를 활용한 학습자는 없었고, 번역과정에서의 모든 결정은 학습자 스스로 내렸다.

11) T=translator



학습자	번역브리프 내용
T11)	원문과 번역문을 1대1로 함께 교재에 실는 형태이지만, 번역을 배우기 위한 수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착안해 수업의 목적이 번역문은 원문의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고 한국어다워야 한다는 점을 배운다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어에서 번역한 느낌이 나지 않도록 한국어에서 자연스럽게 번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T2	원문과 대조되는 번역문으로 실릴 것이란 점에서 원문의 순서와 표현을 가능한 그대로 따라야 할지 고민하였으나 독자층이 중국어 전공자들이며 3학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어 독해 능력이 최소 중상 이상은 되리라는 가정하에 완전한 직역보다는 자연스러운 어순과 표현을 사용하고자 하였음.
T3	중문과 3학년 학생들이 사용할 교재의 번역이라는 가정 하에 번역의 소비자는 중국과 중국어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번역의뢰인은 담당교수 혹은 출판사일 것이라고 추정함. 원문의 내용과 사용된 어휘 수준이 대학교 3학년생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고유명사 등을 풀어서 번역하지는 않음. 교재에 원문과 번역문이 함께 실린다는 것을 고려하여 해당 교재를 사용하는 강의를 번역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함. 때문에 번역물의 사용 목적이 정보의 전달보다는 번역표현의 예시에 있다고 보고 글의 흐름이 부자연스럽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해 내용이 왜곡되지 않는 범위 하에서 문장의 순서를 선택적으로 바꾸어 번역함.
T4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중고급 기타 교재의 번역 대조문과 원문의 영어번역본을 참고하였습니다. 중국어 원문과 대조되는 형식으로 실릴 계획이므로 문장의 순서는 대체로 중국어 원문과 같이 번역하였고 학생들의 대조편의를 위하여 대체로 직역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T5	본 번역문은 중문과 학생들의 외국어 학습을 위한 중한 대역이므로 어휘의 정확한 뜻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의역보다는 직역에 가깝도록 했고, 학생들이 ST와 TT를 대조해가며 공부할 것이란 것을 여부에 두고 번역하였다. 교재에 실릴 번역이기 때문에 직역에 가깝게 하려다 보니 문장이 너무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어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한국식 문장으로 부드럽게 연결하는 것이 어려워 고민을 많이 했다.

[표 2] 학습자의 1회차 교재용 번역브리프(강조는 필자)

5인의 학습자 중 T4, T5는 교재 게재용 번역이라는 의뢰에 대해 학습번역의 외국어 학습 보조 기능이라는 번역목적에 파악한 반면, T1, T2, T3은 번역의 목적을 적절한 번역의 예시로 파악한 데서 학습자들이 동일 번역상황을 다

르게 인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2, T3의 브리프에서는 교재를 사용할 독자들의 어학 실력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어, 단순한 ST, TT 전환 외에 독자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나타내며, T3의 경우 발주자에 대한 언급이 들어있어 번역 과정의 참여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의 번역브리프를 통해 교재 번역을 수행한 5인의 학습자 중 교수자의 번역요구를 정확히 파악한 학습자는 2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학습번역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학습자가 비교적 많았던 이유는 통번역대학원 2학기 과정인 학습자들이 입학 후 계속해서 전문번역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대표되는 가독성에 대한 요구를 비교적 많이 받아 극도로 ST지향적인 학습번역 방식을 회피하고자 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연구자는 학습자 중 한국의 외국어 교재 번역 방식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학습번역이 요구하는 바를 더 잘 파악할 것이라 예측했으나, 가장 우수한 학습번역 결과물을 제출한 학습자는 중국어 과외를 많이 하고 있는 조선족 학생이었던 것에서 본 실험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번역상황 파악이 개인적 차이보다 실무 경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sup>12)</sup>. 만약 학습자들이 교수자에게 텍스트 외적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다면 번역 목적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나, 학습자들은 수업 시간을 제외한 교수자에 대한 개별적인 접촉은 부정행위나 중요 정보를 독점하는 행위로 인식해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번역 목적의 인지는 발주자가 기대한 번역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번역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적극성이 부족한 것으로 관찰되어,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교수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2) 여행잡지 번역을 수행한 다른 조선족 학생은 여행잡지에 실릴 번역이므로 ‘뭇을 났을 수 있는 외래어’를 쓰겠다고 번역브리프를 통해 밝힌 것을 통해 해당 학습자는 여행잡지라는 텍스트의 특징을 외래어로 파악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의 국적이나 해외 체류 기간, 실무 경험 등에 따라 번역상황의 파악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본 연구에서도 일부 그러한 관점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였으나, 본 연구는 게재매체에 따른 학습자 번역브리프의 차이 및 교수자와의 소통에 방점을 두어 진행되었으므로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검증을 위한 텍스트 및 엄밀히 설계된 연구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3]은 여행잡지 번역을 수행한 학습자들의 번역브리프이다.

학습자	번역브리프 내용
T6	<p>의뢰인: 여행잡지 담당자                      번역목적: 여행잡지를 통해 스타벅스의 ‘제3의 공간’ 개념을 소개, 더불어 중국에서의 스타벅스의 입지 소개                      번역방향: 여행잡지의 문체와 스타일을 보면 <u>멋을 낼 수 있는 외래어를 사용, 또한 쉽게 읽히는 것도 특징, 쉬운 표현과 외래어를 곁들인 고급스러운 어휘로 최대한 여행잡지의 느낌을 살림.</u></p>
T7	<p>의뢰인은 여행잡지 담당 편집자. 독자는 여행잡지 독자. 번역하는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어떻게 하면 원문의 내용도 전달하면서 <u>잡지의 문체를 최대한 살릴까</u>였습니다. 우선 스타벅스 코리아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소개를 하는지 자세히 보고 그 내용을 많이 참고했구요. 스타벅스와 커피숍 관련한 문장을 많이 찾아봤습니다.</p>
T8	<p>이번 번역은 KTX에 비치될 여행잡지에 게재하기 위한 번역입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여행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잡지로 비치되는 장소와 여행잡지의 특성상 <u>간단명료하고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어휘와 문체를 사용해야</u>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문에 나온 단어를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살리기 위해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p>
T9	<p>발주자: 국내 여행잡지의 편집자                      예상독자: KTX를 이용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승객                      목적: KTX에 비치되는 여행잡지에 게재되는 글로, 스타벅스의 빠른 성장과 중국에서의 트렌드화를 다룬 원문 기사를 한국의 독자가 여행 중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잡지기사로 번역                      주안점: 텍스트가 여행잡지에 실린다는 점을 감안하여, 잡지기사 특유의 문체(<u>세련되고, 이해가 쉽고, 호기심을 유발하는</u>)를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찾아보고 최대한 가깝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KTX에 비치되는 여행잡지의 경우 독자가 여행 중 약간의 정보를 얻어가는 차원에서 가볍게 읽어야 하기 때문에 <u>가급적 지루함을 피하려고</u> 했고, 원문의 특정 어휘나 문장 구성에 <u>엇매이지 않고 최대한 이해를 돕는 쪽으로 번역</u>했습니다.                      참고자료: 스타벅스 홈페이지, 네이버 지식사전(스타벅스/하워드 슐츠 관련내용), 월간 중앙 기사 ‘진화하는 커피숍’</p>
T10	<p>이 번역물은 KTX 내에 비치되는 여행잡지에 실릴 예정으로, 예상 독자는 KTX 승객들이다. 따라서 이동 중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게 번역했</p>

다. 예상 독자들이 원문과 번역물을 대조해 볼 가능성이 극히 낮으므로, 한국어로 옮겼을 때 어감이 이상한 부분은 굳이 모든 내용을 옮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삭제하여 일부 내용은 원문과 조금 다르다. 스타벅스에 관한 기사 및 편을 참고했고, 스타벅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타벅스 소개를 참고했다.

(표 3) 학습자의 1회차 여행잡지용 번역브리프

여행잡지 번역을 수행한 5인의 학습자들의 번역브리프를 살펴보면 주로 독자에 대한 고려 및 잡지라는 게재 매체를 고려한 문체 및 번역 전략과 관련된 언급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T6은 ‘쉬운 표현과 외래어를 곁들인 고급스러운 어휘’를 선택하겠다는 방침을, T8은 ‘간단명료하고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어휘와 문체, 생동감 있는 표현을 위한 설명 추가’의 입장을 밝혔다. T9는 ‘원문의 특정 어휘나 문장 구성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이해를 돕는’, T10은 ‘원문과의 대조 가능성이 낮으므로, 어감을 고려하여 삭제하여 일부 내용과 ST와의 차이’를 언급해둔 데서 학습번역의 취지를 파악했던 T4, T5와는 번역브리프에 드러난 고려사항이 다르며, 게재 매체에 따라 이들이 선택한 번역 방침 역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그룹의 번역브리프 분석을 통해 교재번역보다는 잡지번역을 수행한 그룹이 번역의 목적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도 비교적 명확히 제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4는 수업시간을 통해 학습번역과 전문번역의 차이 및 각 번역목적에 따른 번역방법에 대해 토론한 후 브리프를 바꾸어 수행한 2회차 과제 중 학습번역을 수행한 학습자들의 번역목적과 관련한 학습자들의 기술 내용이다.

학습자	번역브리프 내용
T6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공부하면서 어휘의 뜻과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고급 중국어 표현을 배울 수 있도록 함. 학생들이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문과 3학년 학생들의 중국어 수준이 초중급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을 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과

	도하거나 불필요한 수식어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그대로 <u>직역했고, 문장구조도 최대한 바꾸지 않았습니다.</u>
T7	...학생들의 공부를 돕기 위한 교재로 중국어 단어와 문법이 잘 표현되어 있는 번역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문 전체의 뜻을 이해하고 정보를 얻기 보다는 원문과 대조해가며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공부하는 학생이 독자층이기에 생동감 있는 자연스런 한국어 표현보다는 번역본을 보고 중국어 문장과 대조하기 편하도록 직역에 가깝게 번역하였습니다. 번역할 때 단어를 직역하다 보니 조금은 어색한 한국어 표현이 쓰여서 매끄러운 단어로 바꿔야할지 고민하였습니다.
T8	번역목적: 교재번역을 통해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번역 참조물을 예시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고 아울러 번역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 번역방향: 학생들이 번역 참조물인 만큼 원문 그대로의 어순과 느낌을 살려 학생들의 학습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번역.
T9	...교재에 실리는 문장이기 때문에 모든 단어를 최대한 직역하고 단락 순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번역하였다. 번역의 목적은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문장의 어휘나 문법을 제대로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번역의 문제점은 역시 어휘를 선택하는 데 있어 직역을 하면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한국어스럽지 않은 것이 많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을 여러 권 찾아보고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찾고자 노력했다.
T10	본문과 번역물을 일일이 대조해 보며 공부하는 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순은 대체로 본문의 어순을 따라 번역했으며, 학생들의 중국어 문법 공부를 위해 다소 어색한 감이 있더라도 문법 구문을 살려 번역했다.

(표 4) 학습자의 2회차 외국어 교재용 번역브리프

2회차 과제에 취지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수업시간에 논의된 내용이 얼마나 전달,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게재매체를 바꾸어 번역한 결과 [표 4]와 같은 번역브리프가 제출되었다. 학습번역의 목적을 번역문의 예시로 파악한 T8을 제외하고는 학습자들은 수업시간에 논의한 학습번역의 목적, 번역 사용자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 ST의 어휘와 문법적인 표지가 드러나도록 번역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파악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8은 번역 목적 부분에 학습번역과는 다소 거리가 먼 번역 학습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원문 그대로의 어순과 느낌을 살린다’는 학습번역의 방침을 밝힌 것에서 강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1주차와 교재 번역을 수행한 T2와 T3은 사용자에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파악했으나, 2주차에

서 T6은 교재 사용자에게 해당 텍스트가 비교적 어려울 것으로 파악한 것에서 텍스트의 난이도와 교재 사용자의 중국어 실력에 대한 토론이 부족했거나, 수업시간의 토론을 통해 학습번역에서 구현해야할 문법적 표지들로 인해 ST난이도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는 추측을 하게 되었다. 2회차의 번역브리프에서는 학습번역을 수행하다보니 TT 결과물의 어색한 표현에 대한 고민들이 다수 언급된 것도 1주차와는 차이를 보인다.

### 3.2.2. 브리프와 TT의 관계

학습자들이 설정한 번역브리프에 따라 TT 역시 차이를 보인다. [표 5]는 학습자들이 1주차에 제출한 TT의 제목이다.

	교재		여행잡지
T1	스타벅스의 '제3의 공간'	T6	스타벅스와 '제3의 공간'
T2	'제3의 공간', 스타벅스	T7	제3의 공간, 스타벅스
T3	'제3의 공간', 스타벅스	T8	'제3의 공간' 스타벅스
T4	스타벅스의 '세번째 공간'	T9	진화하는 스타벅스.. 중국 직장인 사로잡은 비결은?
T5	제3의 공간-스타벅스	T10	'제3의 공간' 스타벅스
ST	星巴克的“第三空间”		

[표 5] 1회차 TT 제목

제3의 공간은 집과 직장을 제외한 교통, 레저, 휴식 공간으로 ST 안에 언급되어 있었고, ST 형태 그대로 옮기면 “스타벅스의 ‘제3의 공간’ 이다. 첫 번째 번역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제목을 붙인 T9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3의 공간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T9는 원문이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인 독자들에게 중국 관련 내용임을 암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목을 결정하였다는 점을 브리프를 통해 밝혔다.

	교재		여행잡지
T1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처음 문을 연 스타벅스는 당시 커피 원두만~	T6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1호점을 오픈한 이래~

T2	1971년 미국 시애틀의 커피 원두 판매점으로 출발한 스타벅스는 ~	T7	스타벅스는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커피 원두 로스팅을 시작으로~
T3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창업한 스타벅스는 초창기 커피 원두 판매를~	T8	스타벅스는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탄생하였다.
T4	스타벅스는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개업하였다.	T9	스타벅스는 지난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커피 원두를 판매하는 회사로 시작했다.
T5	스타벅스는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개업하였다.	T10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문을 열 당시만 해도, 스타벅스는~
ST	星巴克于1971年在美国西雅图市开业, 开始时只出售咖啡豆,		

[표 6] 1회차 TT

[표 6]은 도입부의 TT이다. 교재이므로 최대한 ST의 형태를 TT에 구현하겠다는 브리프를 밝힌 T4와 T5는 ST의 형태를 그대로 살리고, 영업을 시작한다는 표현인 중국어 표현인 ‘开业(開業)’을 그대로 살린 반면, 여행잡지에 실리기 위한 번역을 수행한 그룹은 T9를 제외하고는 짧은 첫 번째 문장을 뒷 문장과 연결해 ST로부터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또한 T9 역시 ‘영업을 시작하다’라는 ST의 표현 대신 ‘탄생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에서 자신이 밝힌 번역브리프에 따라 선택의 방식에 차이를 보인 것에서 학습자의 번역론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서 번역브리프의 효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과 [표 8]은 학습자들의 2회차 TT이다. 수업시간을 통해 다른 학습자들의 1차 TT를 살펴보고 토론한 결과 학습자들은 교재와 여행잡지라는 게재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 여행잡지는 ST의 정보를 활용하되 TT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행잡지		교재	
T1	도심 속 휴식처, 스타벅스	T6	스타벅스와 ‘제3의 공간’

T2	스타벅스 성공의 열쇠, ‘제3의 공간’	T7	스타벅스, 제3의 공간
T3	쉽의 미학, 스타벅스	T8	‘제3의 공간’, 스타벅스
T4	스타벅스 ‘세번째 공간’	T9	스타벅스의 ‘제3의 공간’
T5	나만의 아지트 - 스타벅스	T10	스타벅스, ‘제3의 공간’
ST	星巴克的“第三空间”		

(표 7) 2회차 TT 제목

	여행잡지		교재
T1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처음 문을 연 스타벅스는 30여년이 지난~	T6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1호점을 오픈한 이래~
T2	1971년 미국 시애틀의 커피 원두 판매점으로 출발한 스타벅스는 ~	T7	스타벅스는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개업하였다.
T3	1971년 미국 시애틀, 스타벅스 1호점에서 손님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커피 원두 뿐이었다.	T8	스타벅스는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개업하였다.
T4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첫 스타벅스가 개업하였다.	T9	스타벅스는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개업했다.
T5	1971년, 스타벅스는 시애틀에 처음 문을 열었다.	T10	스타벅스는 1971년에 미국 시애틀에서 개업했다.
ST	星巴克于1971年在美国西雅图市开业, 开始时只出售咖啡豆,		

(표 8) 2회차 TT

여행잡지에 실릴 번역을 수행한 T1~T5는 당초 선택했던 ‘제3의 공간’이라는, 본문 속의 설명을 읽어야 파악이 되는 표현을 버리고, 자신들이 전체 텍스트에서 파악한 스타벅스의 이미지를 가져와 제목을 붙였다. 특히 이들이 사용한 표현은 본문에 언급한 표현이 아니라 이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스타벅스를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표현을 사용한 과감한 선택이 다수 관찰되었다. TT의 문장 구조 역시 ST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표현하였고, 교재번역을 수행한 T6~T10은 ST의 표현 및 구조를 살려 번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제목의 경우 여행번역을 수행한 학습자들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제목을 붙여 다양한 TT를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스타벅스 성공의



열쇠'라는 제목을 붙인 T2은 번역브리프를 통해 독자들이 성공 스토리에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제목에 '성공'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밝히고, ST에서는 '예민하게 파악했다(敏銳地察覺到)'로 표현된 것을 TT에서는 '비즈니스 감각을 자극했다'라고 표현한 것에서 번역브리프에 나타난 번역방침이 TT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3. 브리프 교환 후 2차 TT

본 절에서는 1,2회차 TT 결과물의 차이가 큰 학습자의 1,2회차 TT를 상세히 비교함으로써 번역목적에 따른 학습자의 선택 결과 및 교수자와 학습자의 의사소통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9]와 [표 10]은 T3의 1,2회차 TT를 비교한 결과이다. 1회차에서 학습번역을 수행한 T3은 학습번역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 TL의 선택에서 일관성이 부족했다. 그러나 수업 후 제출한 2회차 TT에서는 여행잡지라는 게재 매체의 특징을 충분히 파악하여 가독성 높은 TT를 제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소통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달라진 게재매체에 따라 동일 ST를 바탕으로 당초 제출했던 TT1과는 확연히 다른 TT2를 완성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TT1(교재)	ST (연구자의 학습번역)	TT2(여행잡지)
'제3의 공간' 스타벅스	星巴克的"第三空間" 스타벅스의 "제3의 공간"	'쉽의 미학' 스타벅스
요식업계의 기적을 이끌다	餐飲業的奇迹 요식업의 기적	기적의 시작
커피 그 이상의 것을 팔다	出售的是咖啡體驗 파는 것은 커피체험	커피 그 이상의 것
중국 화이트 칼라 스타벅스를 즐기다	中國白領享受星巴克 중국 화이트 칼라 스타벅스를 즐기다	대륙을 커피로 물들이다

[표 9] 게재매체의 차이에 따른 동일 학습자의 1,2회차 TT(제목과 소제목)

T3의 경우 당초 TT1을 번역했을 때는 학습번역의 용도와 목적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 일부분에서는 ST의 표현과 구조를 그대로 남겨두고,

일부분에서는 가독성을 우선시하는 TT를 제출하여, 교재 사용자에게는 필요할 수 있는 표현인 ‘開業(영업을 시작하다)’, ‘開始(명사: 처음, 시작)’, ‘經過(거쳐, 통하여)’, ‘據說(~라 한다)’ 등을 부각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2회차에서는 ST 구조에서 벗어나 ST가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잡지라는 게재 매체를 고려해 가독성 높은 TT를 제출하였고, 학습번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ST의 문법적 표지와는 거리를 두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번역을 수행하였다.

TT1(교재)	TT2(여행잡지)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창업한 스타벅스는 초창기 커피 원두 판매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발전을 거듭하였다. 현재까지 전세계 30여개 국가에 진출한 스타벅스는 미국 국내 5000여개 매장과 해외 2000여개 매장을 합해 총 80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8시간마다 1개 매장이 생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1971년 미국 시애틀. 스타벅스 1호점에서 손님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커피 원두 뿐이었다. 그 후 30여년 간 전세계 30여개 국가에 진출해 2000여개 매장을 오픈한 스타벅스는 미국 5000여개 국내 매장까지 합하면 총 매장 수만 8000개가 넘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8시간마다 1개 매장이 생길 정도로 스타벅스의 빠른 확장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ST)星巴克于1971年在美国西雅图市开业, 开始时只出售咖啡豆, 经过三十多年的发展, 现在已进入全球三十多个国家和地区, 开设了大约八千多家分店, 其中在美国有五千家, 海外两千多家. 星巴克的发展速度很快, 据说每八个小时就有一家新店开业。	
(연구자의 학습 번역) 스타벅스는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원두만을 판매했으나, 30여년간의 발전을 통해 오늘날 30여개 국가와 지역에 진출해 8,000여 개의 분점을 개설했는데, 그 중 미국에 5,000여개, 해외에 2,000여개가 있다. 스타벅스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빨라서 8시간마다 새 매장이 문을 연다고 한다.	

(표 10) 게재매체의 차이에 따른 동일 학습자의 1,2회차 TT(본문)

#### 4. 나가며

본 연구는 번역과정의 참여자간 번역에 대한 인식 차이 및 인식의 차이가 번역수업의 효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해 번역강의실의 두 주체인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 의사소통 과정에 대해 관찰하고자 진행되었다.

실험연구를 통해 번역과업 수행 과정에서 번역목적, 번역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번역전략, 번역 독자의 수요 등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교수자의 기대와 학습자 및 학습자간 차이가 크고, 학습자들의 인식의 차이가 TT에도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의 번역에 대한 인식을 교수자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며, 향후 두 주체간 효율적인 소통을 위한 방법론 및 교수법 개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이 작성한 번역브리프를 통해 학습자의 번역론, 번역 상황, 번역 목적, 발주자, 및 사용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같은 인식이 번역을 수행하는 과정 전반 및 TT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여 학습자의 선택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서 번역브리프의 효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과제를 마치고, 다음 과제로 이행하는 것과는 달리 동일 ST를 다른 번역브리프에 따라 번역하는 실습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번역목적에 따라 확연히 다른 TT가 생산될 수 있음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번역에 대한 인식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였고, 강의가 이루어지면 이해 역시 이루어졌다고 전제하던 기존의 강의 방법에서 벗어나 번역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이루어진 논의 사항을 재확인하고, 이해도를 확인하여 번역강의실에서의 소통을 위한 출발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 인식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번역 참여자들 사이에서 번역 자체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야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앞으로 학습자의 실무 경험, 외국어 능력, 국적, 해외 체류 경력 등 개인적 배경의 차이에 따른 번역론의 차이, 번역상황의 파악 등 번역브리프가 보여줄 수 있는 학습자, 번역사의 개별적 특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번역 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종규, 김정연 옮김 (2002) 『번역교육과 교육에서의 번역』, 서울: 고려대학교  
(Delisle, J. (1998) Enseignement de la Traduction et Traduction dans l'Enseignement, Ottawa U.).
- 신지선 (2008) 「번역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Translation Brief(번역 의뢰사항)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6.1: 37-53.
- 안인경, 정혜연, 이정현 옮김 (2010) 『번역교육과 교육에서의 번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Reiß, K. & Vermeer, H. Grundlegung einer allgemeinen Translationstheorie, Tübingen : M. Niemeyer).
- 이상원 (2006) 『한국 출판 번역 독자들의 번역 평가 규범 연구』,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 이명숙 (2001)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통한 교육 실제의 개선」,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논총』 17(2): 381-408.
- 이용숙, 김영천, 이혁규, 김영미, 조덕주, 조재식 (2005) 『교육현장 개선과 함께 하는 실행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 전성기 (2008) 『번역인문학과 번역비평』, 서울: 고려대학교.
- 정연일 (2003) 「번역수업에 있어서 ‘번역브리프’의 역할」,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논문집』 7: 171-186.
- 정연일 남원준 옮김 (2006) 『번역학입문-이론과 적용』,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2009) 『번역사와 번역학』,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Chesterman, A. & Wagner, E. (2002) Can Theory Help Translators? - A Dialogue between the Ivory Tower and the Wordface, Manchester: St. Jerome).
- 정연일 주진국 옮김 (2006) 『번역행위의 목적성』,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Nord, Christiane. (1997) Translation as a Purposeful Activity, Manchester: St. Jerome).
- 정혜용 (2011) 『번역논쟁』, 파주: 열린책들.
- Adab, Beverly (2000) ‘Evaluating competence’, *Developing translation*

- competence*,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215-228.
- Fraser, Janet (2000) 'The broader view: How freelance translators define translation competence', *Developing translation competence*.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51-62.
- Harvey, Keith (1998) 'Compensation and the brief in a non-literary translation: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Pedagogical Application', *Target* 10(2): 267-290.
- Hatim, Basil (2001) *Teaching and Researching Translation*. Edinburgh: Pearson Educational Limited.
- Nord, Christiane (1994) 'Translation as A Process if Linguistic and Cultural', *Teaching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4: 59-86.
- Orozco, Mariana (2000) 'Building a Mesuring Instrument', *Developing Translation Competence*: 199-214.
- Pym, Anthony (1992) 'Translation Error Analysis and the Interface with Language Teaching', *The Teaching of Translation*: 279-288.
- Sager, Juan (1994) *Language Engineering and translation: consequences of automation*,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51.
- Vermeer, Hans (1989) 'Skopos and commission in translational action', in Venuti(ed.) *Translation Studies Reader* (2000), 221-32.
- Vienne, Jean (1994) 'Towards a Pedagogy of Translation in Situation'. *Perspective*: 51-59.
- Zhong, Yong (2005) 'Plan-based translation assessment an alternative to the standard-based cut-the-feet-to-fit-the-shoes style of assessment', *Meta*: 50(4).
- 袁芳遠. 2005. *成功之道*, 북경: 북경대학출판사: 25-26.

[Abstract]

### **Translation Classroom Communication**

#### **An action-research based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translation briefs and translations of postgraduate students**

Kim, Jin Soo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notions postgraduate learners have on translation and observe how learners and teachers communicate in the classroom. Although the difference in one's notion of translation will significantly affect the translation process and eventually the translation s/he produces, there has been a lack of discussion on this in the translation classroom. In particular, teachers and students have different notions of what translation is and, thus, do not share the same understanding on a given translation situation or a translation product. Naturally, this negatively affects the final translation products students produce as well as sets a ceiling as to what teachers and students can achieve in the classroom.

To identify the notions students have on translation, ten learners were subjected to this study and divided into two groups. Each group was given a translation task with a different translation purpose—"translation pedagogy (professional translation according to Deisle 2002, 229)" and "pedagogical translation—in order to identify what translation strategies learners use depending on a given translation purpose. For every translation assignment, students were instructed to submit translation briefs detailing the target readership, target text-type (or medium), translation purpose as well as the translation problems they identified along with the solutions they came up with. Based on their description, it was explored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on

their translation notion and whether such differences, if any, affected their translations. After the first assignment was completed, a second assignment was given to the students for which the translation purpose was switched between the two groups. In other words, the group that first worked on “translation pedagogy” switched to pedagogical translation, and vice versa.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translation briefs drawn up by students is a useful tool to better understand translation learners. The study also shows that producing different translations based on the same source text with different translation purposes can enhance student understanding of the translator’s role. Finally, having students practise translation by reflecting what has been discussed in the previous class helps the teacher identify whether the students have learned and, therefore, enables deeper understanding on the communication process in the translation classroom.

▶ Key Words: Functional Theories of translation, Skopos, Translation Brief, Translation notion, Communication

김진숙

한국외국어대학교

메일주소: kc9701@hanmail.net

관심분야: 번역교육, 교수자 교육, 번역평가, 번역비평

논문투고일: 2012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2일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19일